

‘복마전’ 경관조명사업 지방선거 판도 흔들다

해남군수 구속 이어 목포·여수도 수사 “불뚝 어디로...” 민주·지역정치권 촉각

기초자치단체의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공직사회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경관조명사업 발주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충식 해남군수를 구속, 민주당 후보자를 사퇴케 한 경찰이 목포와 여수 등 전남지역 다른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호남은 물론 수도권 선거 판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대의 금액을 받은 혐의(뇌물죄)로 김충식(59) 해남군수를 구속했다.

조명업체(주)나이토피아가 해남군청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야간 경관 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등 조정 관련 3개 업체에서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남군에 이어 목포와 여수 등 전남도내 4~5개 시·군에 대해서도 경관조명사업 관련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자치단체 공무원과 이 업체 사이에 거래이 오간 정황과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며, 상층부와의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의 경우 이 업체에 경관조명 공사를 발주한 여수시청 국장급 간부 김모씨(여·59)가 지난 5일 사표를 제출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장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연말부터 2009년까지 야간경관 사업을 담당했으며 이 업체에 발주한 공사금액은 70억 원을 넘어서

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시의 경우, 이 업체에 24건의 사업을 발주했으며 대금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 측에서 시 고위층 측근으로 알려진 1씨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목포시 과장급 등 공무원 4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역 정치권은 ‘경관조명 사업’ 발 불뚝이 어디로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단체장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지역의 선거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해남군수 후보에 이어 또다른 후보가 비리에 연루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조차 압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선거 판도가 요동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심이반과 재공천 등 그 파장이 겹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논두렁 새참 ‘웃음 한가득’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신 22일, 화순읍 화순읍 감도리의 논에서 모란 작업을 마친 농부들이 비닐위에 신문지를 깔고 새참을 준비하고 있다. 한 술 가득 끓인 된장국을 푸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겹다. /화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상생 택했다

임단협 합의안 가결 최종 서명...정상화 작업 박차

금호타이어 노사가 22일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81일만이다. 노조는 또 구조조정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공장 별관 회의실에서 김종호 사장과 고광석 노조 대표회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금호타이어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노조는 21일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별로 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금안 64.22%, 단협안 64.37%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임단협 최종 타결에 따라 기본급 10%가 삭감되고, 워크아웃 기간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올해에 한해 100%)를 반납하게 됐다. 해고 대상자 189명과 해고 예고자 1006명은 취업규칙 준수 등 약속서 제출을 조건으로 해고가 철회됐다.

노조는 또 이날 구조조정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조만간 1000여 명의 긴급 자금 지원과 3000만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새로 개설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사 결과 자본 완전 잠식 상태로 드러난 데 따라 5000억~6000억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워크아웃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호타이어 채권단협의회와 금호타이어 간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 체결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18 30주년 행사 옛 전남도청 개방 내달 6일~21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5·18 30주년 기념행사기간 동안 옛 전남도청 본관 1층·앞마당, 민원실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5·18 30주년 기념행사 주요 프로그램인 전야제의 ‘5·18 합창단 퍼포먼스’를 옛 전남도청 본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등 5월6일부터 21일까지 개방하기로 5·18기념행사위원회와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18 30주년 행사로 기획된 주먹밥 체험과 역사극을 재현하는 ‘5·18사기행’, ‘5월 사진전’, 영화 상영, 30주년 전야제 등 주요 기념행사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추진단은 5·18 보존건물을 전면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당공사 차질과 화재·인명사고·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해 개방 여부를 고심해 왔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탐구영역 선택 3과목으로 축소

2012수능... 수리 영역 출제 범위 확대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10일 치러진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중 수험생이 최대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드는 대신 수리 영역, 특히 나형의 출제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기사 7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학년도 수능시험은 내년 11월10일 시행돼 같은 달 30일 성적이 통지된다.

올해 치러지는 2011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시험 날짜가 8일 당겨진 것이며 시험영역 및 과목, 문항 수, 출제형식, 성적 표기 방법 등은 큰 변화가 없다.

/연합스

다만, 사회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각각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직업탐구 영역은 종전과 같이 최대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최대 3과목,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1과목으로,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는 수리 나형은 ‘수학 I’에서만 30문항 출제됐으나 2012학년도에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이 추가돼 15문항씩 나온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예술제
접수기간
미술·작문 부문
5월 6일(목) ~ 13일(목)
http://art.kjmedia.co.kr
062-220-0541

5월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대회

신청기간: 2010.5. 6(목) ~ 5.13(목)
발표대회: 2010.5.24(월)
발표장소: 2010.5.27(목), 28(금)

주최: 남부발전 - 남부발전
주최: 남부발전 - 남부발전
주최: 남부발전 - 남부발전

http://www.kjmedia.co.kr